

# 최대 100% 손실 '파생결합상품', 이달 집중검사 한다

총 8224억원 판매·99% 은행서 사모펀드 형태(DLF)

우리은행 주로 판매 독일 국채상품 95% 손실(-1204억)

설계부터 판매까지 합동검사...불완전판매도 파악

◇총 판매잔액 8224억, 은행이 99% 판매...독일 국채상품 95% 손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DLF·DLS 판매잔액은 총 8224억원이다. 회사별로는 우리은행(4012억원)과 KEB하나은행(3876억원)이 99%를 차지했고, KB국민은행(262억원)·유안타증권(50억원)·미래에셋대우증권(13억원)·NH투자증권(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판매잔액의 99.1%(8150억원)은 은행이 사모펀드 형태(DLF)로, 나머지(74억원)는 증권회사에서 판매(DLS)했다. 개인투자자(3654명)가 투자한 금액은 7326억원으로 전체 판매잔액의 89.1%를 차지했다. 법인(188사)은 898억원을 투자했다. 은행 등은 해당 상품의 투자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PB(프라이빗 뱅킹) 고객 등에게 최소 1억원 이상 고액 투자를 받았다. 대부분 자산가나 퇴직자가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영국의 CMS 금리 연계상품 판매잔액은 7월 말 6958억원 수준으로 판매잔액 중 84.7%에 달했다. 만기(2019년 492억원, 2020년 6141억원, 2022년 325억원)까지 현재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3354억원, 평균 예상손실률은 56.2%다. 이 상품은 만기 평가시 두 기초자산의 증가가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 55%(12개월) 이상이면 연 3.5%를 지급하고,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 손실을 본대만기 쿠폰 고려시 최종수익률 △96.5%다.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한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은 금리 하락 폭이 크고 만기도 4~6개월로 짧아 예상 손실이 더 크다. 1269억원의 판매잔액 모두가 손실구간에 이미 진입했다. 현재 금리가 만기(오는 9~11월)까지 유지된다면 예상 손실 금액은 마이너스(-) 1204억원으로 평균 예상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이 상품은 만기일 금리가 베리어(-0.25%) 이상인 경우 원금 전액과 2% 쿠폰(연 4%)을, 만기일 금리가 베리



어(2025%) 미만으로 하락하면 하회 쪽에 손실 배수(25)를 곱한 비율로 원금을 잃는다. 이론상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으며, 만기일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연 4% 상당으로 지급하는 쿠폰을 고려하면 최종 수익률은 최소 -98%~최대 2%(6개월 기준)이다.

◇금융사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집중 점검...불완전판매 파악해 분쟁조정도 신속히

이에 금감원은 파생결합상품의 제조·판매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검사에 나선다. 투자자 입장에서 상품을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상품은 레버리지가 높아 만기 시 손실률이 9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살피고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해당 상품의 판매(은행 등), 발행사(증권사),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검사국이 연계해 이달 중 합동검사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핵심은 개별 판매 건보다 은행 전반의 위험·부당한 업무행태와 리스크 관리를 엄중하게 했는지 여부"라며 "은행과 증권·자산운용사들의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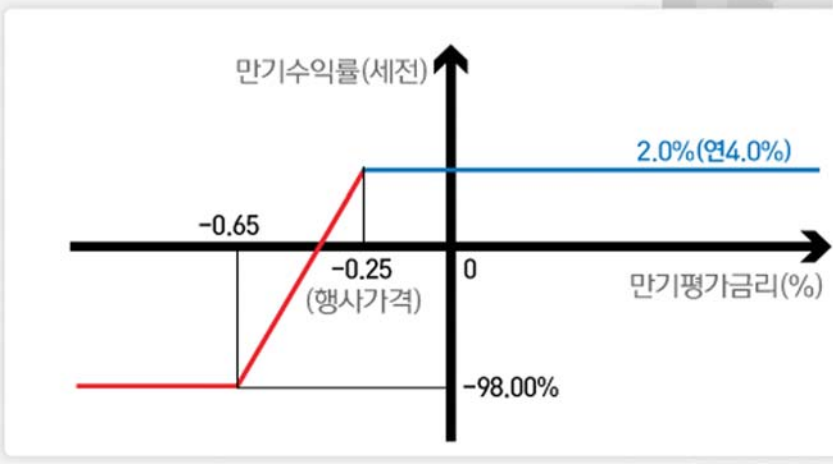
야기가 다를 수 있어 합동검사를 통해 'OEM 펀드'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이 낮은 영업량 등을 무기로 자산운용사 등에 자사가 원하는 특정 파생상품의 편입을 요구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원활한 분쟁조정도 추진한다. 지난 16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총 29건이다. 금감원은 검사와 더불어 분쟁조정 관련 민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손해배상 등을 절차별 배움 계획을 세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로, 양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면 손해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하락 가능성, 미·중 무역전쟁, 홍콩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어 금리·환율·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더 자세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뉴스1

##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사모펀드 (DLF) 손익구조 그래프(예시)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원금의 최대 100%까지 손실을 보게 된 총 8200억원 규모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에 대해 설계·제조·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를 이달 중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현재까지 20여건 접수된 분쟁조정 민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분쟁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DLS는 기초자산(원유·금·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이다. 최근 문제가 된 상품은 미국·영국의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와 독일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금리가 최초 약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3~5% 수익을 내지만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하락 폭에 따라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 DLS·DLF가 뭐길래...개인 3654명 투자해 최대 100% 손실

총 8224억원 판매 잔액 중 4558억원 손실 추정

최대 100% 원금 손실이 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의 피해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이들 상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금리 연계 DLF·DLS 잔액은 8224억원이며 이중 예상손실은 4558억원으로 추정됐다. 원금 손실률도 보면 무려 55.4%다. 손실구간에 있는 판매 잔액은 7239

억원이다. 개인투자자 3654명이 투자한 금액이 7326억원(비중 89.1%)이며 법인(188회사)이 898억원을 투자했다.

이들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글로벌 경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됐는지 상품 설계·발행(운용

사·증권사·판매(은행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연계 사모펀드(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DLS에 투자한 펀드다.

만기(6개월) 때 독일 10년물 금리가 -0.25% 이상이면 원금 전액에 더해 연 4% 수익을 보장 하지만 금리가 -0.25%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이에 손실배수 25배를 곱한 비율로 원금이 손실 나는 구조다. 금리 하회폭 0.01%당 원금은 2.5% 손실이 나며 그 하회폭이 0.4%를 넘어서면 원금

이 모두 날라간다. 다시 말해 금리가 -0.65% 미만이면 한 푼도 건진다. 다만 만기일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연 4% 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최악의 수익률은 -98%다. 이 상품은 9~11월 만기가 돌아오고 지난 7월 기준 판매 잔액은 1269억원이다.

올해 1월2일 연 0.18%였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16일 연 -0.684%로 추락했다. 금감원이 추정한 이 상품의 원금 예상 손실률은 95.1%에 달한다.

미국과 영국 CMS 금리 연계 사모펀드(DLF) 판매 잔액은 6958억원이다. 이중 5773억원(비중 83.1%)이 원금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금감원이 추정한 예상 손실금액과 예상손실률은 각각 3354억원과 56.2%다.

이 상품은 USD CMS 5년 금리와 GBP CMS 7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설계됐다. 조기상환과 만기상환시 두 기초자산 증가가 기준에 충족하면 원금에 더해 연 3.5% 수익을 보장하지만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에 도달하면 원금 전액 손실된다. 만기 쿠폰 지급 감안시 최악의 수익률은 -96.5%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이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을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형 증권사 PB 팀장은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이런 상품 판매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뉴스1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